



코스피  
2098.71  
(+7.98)



코스닥  
714.86  
(-4.27)



국고채  
1.48  
(-0.01)



환율  
1185.80  
(-0.70)

## 운영체계 지능화로 생산성 높였다

(주)나전 스마트공장 가보니

관절형 로봇 설비 도입 후 매년 매출 10% 성장

업계 최초 금형관리 시스템 부품 고품질 성과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정부가 국정과제로 오는 2020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 보급을 목표로 세운 가운데 '스마트 공장'이 제조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제품 생산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동화 솔루션을 이용해 제품을 적시에 생산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지능화한 것이 특징인 스마트 공장은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등을 통해 매출 증대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도 지난해 124개의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광주전남 지역에 211개 기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에 앞서 중기지방청은 현장의 애로정취와 스마트공장 도입 모범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18일 광주 평동산단에 위치한 (주)나전 스마트 공장 기자단투어를 진행했다.

(주)나전은 1986년 삼광정밀공업(주)로 록스타를 생산해오다 1997년 회사명을 (주)나전으로 변경해 본격적으로 자동차 부품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듬해 레토나와 봉고트럭을 생산했으며 스포티지, 카렌스 등 현대자동차, 기아모터스, 현대모비스의 제1차 협력업체로 오랜시간 축적된 기술력과 자동화 시스템을 바

탕으로 성장해온 중견기업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스포티지, 소울, SP2, 봉고트럭에 사용되는 Interior·Cockpit·Exterior·FEM Parts 제품의 70%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매출 559억원을 올린 나전은 지난해 매출 904억원으로 매년 괄목할만한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10여년 전부터 추진해온 스마트공장 도입의 성과다.

현재 3,000t, 2,500t 등을 포함한 총 11대의 사출기와 HR050, HR165 등 32대의 관절형 로봇 설비를 갖추고 있는 나전은 스마트공장 도입 후 생산성 15% 증가, 불량률 35% 감소시켰다. 그 결과 매출액은 매년 10% 이상씩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나전은 시스템개선을 통한 생산성·부품품질 향상을 위해 업계최초로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인 RFID, RTLS를 활용한 금형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중에 있으며 생산자동화 및 검사자동화 시스템 등을 구축해 부품품질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함께 자재 재고관리의 전산화를 통해 자재의 효율적 사용과 자재낭비요인을 제거했으며, 생산의 투명성 또한 확보했다.

독보적인 기술력과 납품 능력을 바탕으



(주)나전 윤시탁 대표가 스마트 공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나전 공장전경

로 나전은 광주지역 업계 최초로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상, 현대기아차주관 품질 5스타 달성 등 명실상부한 자동차 내외장재 선두 업체로 자리매김했다.

윤시탁 대표는 "성형, 도장, 조립의 일체화된 생산 SYSTEM을 구축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자동차부품 산업발전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이재홍 중기지방청장은 "중소기업이 제조혁신과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 공장 도입은 필수다"며 "정부와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지자체도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용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중기단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입장 발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 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18일에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간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4위(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

고 있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를 발표했다.

경영애로 중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한 어려움의 정도는 지난 2년간 40.2%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2년 전과 비교시 고용은 10.2% 감소, 영업이익은 19.4% 감소하였다고 답변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52.1%(신규채용 축소 28.9%, 기존인력 감원 23.2%)를 차지했다.

최저임금이 인하될 경우 인력증원(37.3%)이나 설비투자 확대(15.1%)에 나서겠다는 긍정적 답변이 많아 대조를 이뤘다. /김용현 기자

## 전남농협, 재배농가 ‘팜커밍데이’

고흥 블루베리·커피 농장서 수확·농촌투어

농협전남지역본부는 고흥군 블루베리 농가와 커피 재배 농가를 찾아 ‘팜커밍데이’ 행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팜커밍데이란 농협 직원이 팜스테이마을·조합원농가·자매결연마을·명예이부가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지자체도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용현 기자

일손을 덜어주고 수확한 작물은 전량 구매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줬다.

일손 돕기 후에는 인근 농촌마을 투어로 힐링을 했다.

김석기 본부장은 “농가와 소통의 시간을 자주 마련해 농촌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면서 “여름휴가는 6차 산업의 선두주자 전남농촌에서 농촌 일손도 돕고, 힐링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aT는 18일 본사 회의실에서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aT 제공

## aT,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위촉식

인권영향평가 심의·구제 절차 등 업무 수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8일 본사 회의실에서 체계적인 인권경영 추진을 위해 인권경영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고 관련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부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인권경영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부위원으로는 부사장, 감사실장과

노동조합장이, 외부위원은 이은경 유엔글로벌캠퍼트 한국협회 실장, 정미선 광주시 노동센터 노무사, 한정민 BSI Group Korea 위원, 이윤용 에이플러 대표 등 총 4명이다.

aT는 2017년 인권헌장제정 및 선언식을 개최한 이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관련지침을 제정하는 등 선도적인 인권경영체계를 도입해 왔다.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는 aT의 인권경영의 거버넌스 기구로 인권경영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인권영향평가 심의, 구제절차 수행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병호 사장은 “aT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준중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자체 모니터링과 자가점검 등을 강화하는 등 민간과 농업분야의 인권경영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선옥 기자

## 한전, 산업체 대용량 변압기 무상점검

한국전력은 삼성전자, SK에너지 등 97개 기업·기관이 보유한 1103대의 대용량 변압기에 대한 무상점검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산업체가 보유한 전력설비의 사고가 대형 정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한전은 이번에 점검한 변압기의 절연유 분석결과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무상점검에는 한전 전력연구원

세계 최초로 변압기 수명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퓨란 간이분석 키트’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퓨란 간이분석 키트는 변압기 내부의 무색 유기화합물인 퓨란의 농도를 색이 변하는 시약을 이용, 측정해 변압기의 열화상태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현장에서 변압기의 열화정도를 빠르고 간편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변압기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체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서미애 기자

광주고용노동청 건설현장 감독

광주고용노동청은 장마철의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 대하여 장마철 대비 불시 감독을 실시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집중 호우로 인한 지반과 흙모래(토사), 임시 시설물(가꾸집, 동바리 등) 등의 붕괴 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하수관 등에서의 질식 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사법 처리 및 과태료 처분, 작업 중지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 확인한다 /송수영 기자

### 매월골프렌지

**천연 그린퍼팅장과 벙커 설치!  
향상 꽃과 음악이 흐르는 공간!**

**오픈 이벤트**

- ▶ 여성 우대 20% 할인
- ▶ 자유이용권 1세트 120,000원(1회권 15매)
- ▶ 조조할인 20%(12시 이전, 이후 사용시 1,000원 추가)
- ▶ 레인지 레슨 주1회 무료(38)
- ▶ 신규 2인 이상 동반 등록시 3개월 요금 할인 적용(2인: 10%, 3인: 15%, 4인: 20%) 중복할인 불가

구분	횟수	금액	15시 이전	15시 이후	주말/공휴일
3개월	15회	110,000			
	20회	140,000	100분	70분	70분
	30회	170,000			
	30회	110,000			
	40회	140,000	40분	30분	30분
	60회	170,000			
자유이용권	100회	500,000	100분	70분	70분
	220회	1,000,000	100분	70분	70분

\*6개월은 25,000원씩 추가

예약문의

**062) 681-2255**

**062) 681-0035**

오시는 길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173-7  
(광주광역시 서구 풍서로 203-1)